

# 정인화 광양시장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력”

●민선8기2주년

## 이차전지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주요 성과 꼽아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관광문화도시 구현 ‘집중’

정인화 광양시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광양시의 10대 주요 성과로는 ▲광양 만년 이차전지 기획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개정 이래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27개 사 4조942억원·2천337명) ▲2024년 정부합동평가, 광양시 최초 ‘종합 1위’

달성 ▲‘광양매화축제’, 바가지요금·1회용품·차량 통행 없는 3無, 유료화로 대변신 성공 ▲광양사랑상품권 700억 원 발행,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 등을 꼽았다.

가장 큰 성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들면서 앞으로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된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에 약 4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산업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이차전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제공>

소재 등 미래 소재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후반기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이차전지 소재산업 혁신거점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광

양형 수소산업 육성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에도 나선다.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문화도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양시만의 지역색을 입혀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3개 권역별(백운산권·구봉산권·섬진강권) 관광개발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지원하는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실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공심야 달달어린이병원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등 전 생애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

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노후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친화도시 구축에도 주력한다. 청년 나이를 상향해 청년정책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자립을 강화한다.

정인화 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며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차게 달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쳐 ‘평생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 광양’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 ‘귀농 1번지’ 고흥군, 전남서 귀농인 수 최고 기록

## 전국서 두번째... 다양한 연령층 관심 ‘입증’

고흥군이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 수를 기록하면서 귀농 1번지를 입증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라 지난해 고흥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천615명으로, 이중 귀농인의 수는 132명(가구원 수 1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도 시·군중 가장 많은 인원이며 전국 군 단위로는 두 번째다.

귀농·귀촌인 중 청년 귀농·귀촌(30~40대) 754명(45.8%), 중장년 귀농·귀촌(50대 이상) 891명(54.2%)으로 고흥군이 다양한 연령층의 귀농·귀촌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지역임을

보여줬다.

고흥군은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와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질 좋은 귀농교육 제공을 위해 기존의 남양면 귀농학교를 확대 조성해 ‘체류형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착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도시 1번지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유치 정책과 정착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전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 3년 연속 1위, 2023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유치지원 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귀농·귀촌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3건 신규 지정·보존방안 심의

## 위대기 장군 투구·마하수 고신 교지 등

장흥군은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며 문화재 신규지정 및 보존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건은 6건(지정 4건·기타 2건)으로 장흥군에서 발굴되지 않은

역사·학술·경관·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장흥 금선사 소장 초발심자경문 ▲위대기 장군 투구 ▲마하수 고신 교지가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향토문화

유산인 ‘장흥 금선사 소장 초발심자경문’은 불교 입문서로 서지학적, 불교학적 가치가 크며 처음 확인된 유입본이다.

‘위대기 장군 투구’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인물의 유물로 의향과 관련해 의미가 크다.

‘마하수 고신 교지’는 1585년 ‘중흥대

부형 선공감주부’에 임명한 사령장으로 왕의 어보인 시명지보가 찍혀있어 명량해전의 주역인 역사 인물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 지역 내 미지정유산에 대해 조사하며 역사·학술·예술적 가치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의향장흥의 명맥을 잇기 위한 여러 조사가 필요하다”며 “문화유산의 관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1 위대기 장군 투구 2 장흥 금선사 소장 초발심자경문 3 마하수 고신 교지



(장흥군제공)

# 곡성물, 애플망고·그린파파야 30% 할인

## 국내산 고품질 열대과일 15일까지 2주간 특별 할인

곡성군은 1일 “뜨거운 여름을 맞아 지역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애플망고와 그린파파야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여름철 특별한 과일로 각광받는 국내산 애플망고를 보다 부담없는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기회로, 곡성군 입면의 ‘임마누엘아트팜’이 협력해 진행한다.

곡성 애플망고는 제철을 맞은 어원 품종으로, 사과를 연상시키는 선명한 붉은 겹질과 달콤한 풍미, 특유의 깊은 향이 특징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기획전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품질 열대 과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며 “신규 가입 3천원 쿠폰과 배송비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 담양군, 참진드기 개체수 증가 주의 당부

담양군은 1일 “최근 기온 상승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의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농작업, 등산 등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FTS의 증상은 주로 4~10일 발현되는데, 군에 감염된 참진드기에게 물린 후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낸다.

SFTS의 전국 누적 치명률은 18.7%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절대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텃밭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여주시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 지역전문가 양성

## 18일까지 이론강의·발표·현장답사 진행

여주시는 1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를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되며, 앞서 모집된 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순사건의 개요’를 시작으로 ‘여순사건이 미친 영향’, ‘여순사건 특별법과 향후과제’ 등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참여자 발표수업 및 현장답사 교육이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과 발표수업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여순사건 해

설가증’이 수여되고, 향후 시민과 학생들에게 관련 강의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061-651-15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명 여주시장은 “특별법 통과 이후 올해로 3년째인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매년 인기를 얻어 왜곡된 여순사건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 “여수의 아픈 역사 여자 발표수업 및 현장답사 교육이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과 발표수업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여순사건 해설가증’이 수여되고, 향후 시민과 학생들에게 관련 강의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 보성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시행

##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최대 64만원 지원

보성군은 1일 “이달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자에게 최소 50분 이상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행

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2급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총 8회 기준 3만2천원에서 64만원까지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되거나 1만2천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단,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군민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